



다문화 개척자 19인이 전하는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다문화 이야기

다문화 프런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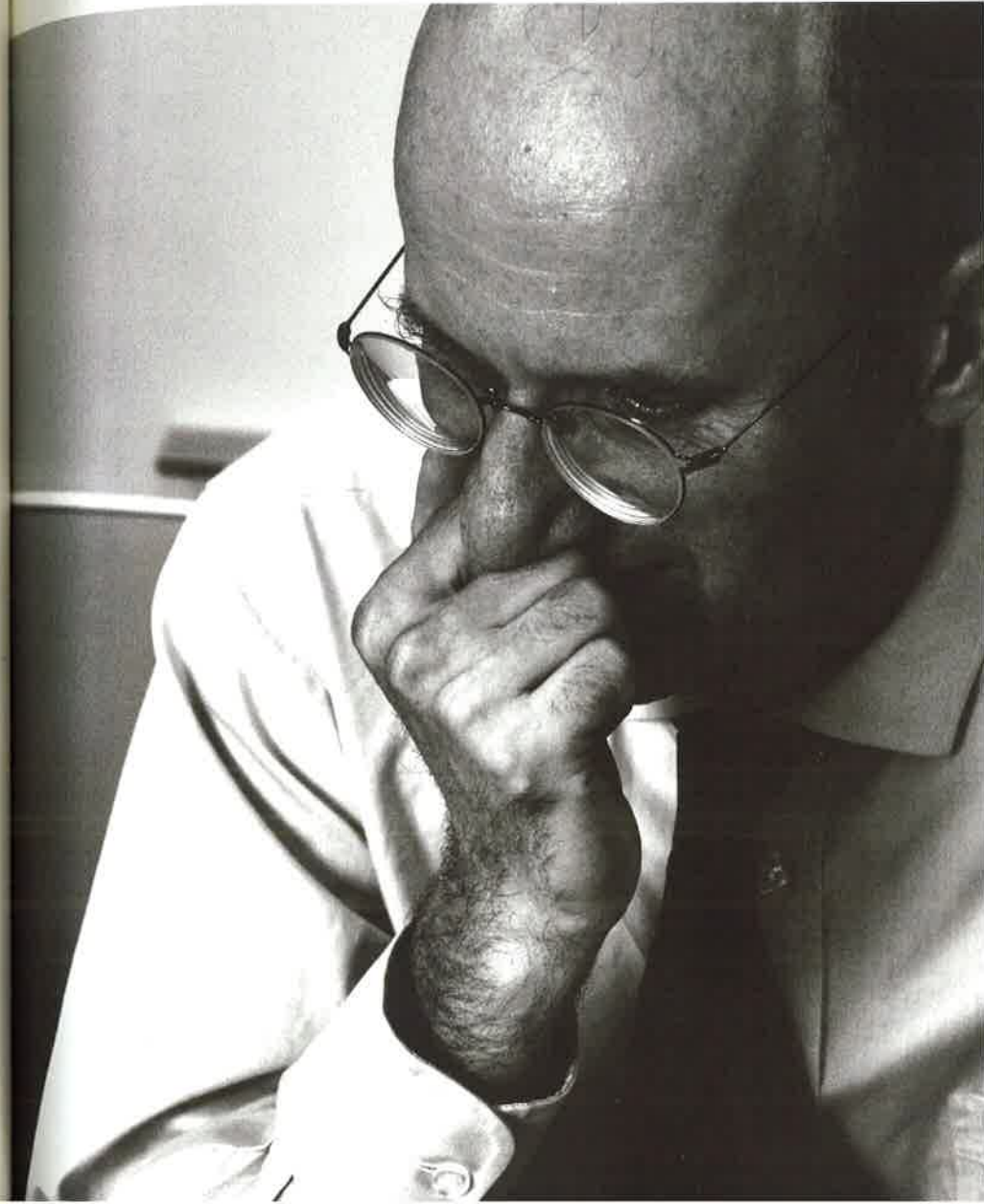
- 나는 한국이 좋다

●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다문화부 지음

다문화 방송인, 국회의원, 교수, 기자, 외교관, 교육자,
국악연주자, 주모, 한의사, 주부, 명상인, 영화인,
문화기획자, 유학생, 가수, 요리사, 경제인이 말하는
평화로운 다문화사회로 가는 19가지 성공 DNA

한국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을 통해
아시아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임마누엘



“

임마누엘

(아시아연구소 소장, 경희대 교수)

한의학, 전통음악, 한옥, 음식, 사상 등 한국의 전통문화는 대단히 우수한 문화이다. 하지만 현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17~18세기 인문학을 배우고 익혀서 전통문화 개성에 활용했다. 한국도 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을 통해 짐자는 문화 콘텐츠를 혼들어 깨워야 한다.

”

●●● 《법화경》에는 자기 안의 보물을 알아채지 못한 한 어리석은 범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이가 친구에게 보석을 받았다. 그런데 보석을 준 친구는 잘 숨겨 준다고 친구가 잠든 사이, 보석을 친구의 옷 안쪽에 넣고 바느질로 기워 두었다. 그러곤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면서 그만 친구에게 보석을 기워 났다는 얘기를 깜빡 하고 가버렸다. 안타깝게도 보석을 받은 친구는 평생을 옷 속 보석의 존재를 모른 채 가난하게 살았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보석을 준 친구를 만난 뒤에야 자신이 늘 보석을 옷에 품고 살았음을 깨닫게 된다.

한국의 우수한 도덕적 기술적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임마누엘 교수가 가장 즐겨 하는 비유라고 한다. 필자는 임마누엘 교수와 한 시간이 넘게 담소를 나누면서 ‘아시아의 가치’와 ‘한국의 선비정신’, 그리고 이미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한국의 가치에 대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의미 있는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문화적 유연성이 살아 숨쉬는 한국문화

임마누엘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강의

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동아시아 전문가이자 글로벌 인문학자다.

임마누엘 교수는 1997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일본문학 조교수로 학자의 길에 들어선 후 지금은 경희대학교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중국과 일본문학을 연구하면서 중간에 낀 한국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단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1년간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그때 한국 특유의 ‘문화적 유연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한국문화엔 뭔지 모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임마누엘 교수의 한국과의 인연은 학문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임마누엘 교수는 2007년 한국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문화를 연구한다.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로부터 국제교류보좌관 자격으로 초빙을 받아 한국에 온 후 도지사 보좌관뿐 아니라 우송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하게 된다. 당시 우송대학교에서 새롭게 국제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그곳에서 4년간 아시아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게 된 것이다. 임마누엘 교수는, 아시아연구소가 이때부터 대전에서 활동을 했으니 ‘아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민간연구소로는 동아시아연구원이나 아산정책연구원보다 더 오랜 전통을 지닌 연구소라고 귀띔한다.

이 파란 눈의 인문학자에게 ‘아시아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 속내가 궁금했다. 임마누엘 교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명료했다.

“처음 한중일 역사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미국인들이 동

아시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아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에 대한 공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미국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도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어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죠. 주로 한국의 국제화, 다문화를 얘기해요. 미국사람은 너무 루즈해요. 너무 아시아를 모릅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신문을 읽거나 중국어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한류, 한국 전통문화로 재도약하라

7년째 한국에 체류 중인 그는 누구보다 한국문화 예찬론자다. 한국의 전통을 연구해 온 임마누엘 교수의 결론은 “한국은 뛰어난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 이미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을 번역·출간하기도 한 그는 “박지원은 당대 지식인으로서 사회 혁신에 관심이 있었고, 문학과 예술에 뛰어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또한 항상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혁신



임마누엘 교수는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 한류에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바깥한 충고를 했다.

이 부족했던 18세기 조선시대에 소설이나 문학작품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책으로 사람의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는 나의 철학은 연암 박지원으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창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오고 있는 한류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한국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한국 문화의 장기적인 지속은 어렵다. 가수나 영화를 통한 한류도 좋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외국 대학에 한국을 전공한 전임 교수가

없다면 한류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니 전통이 살아 있어야 한다. 현대 가수도 중요하지만, 아인슈타인이나 셰익스피어와 같은 반열에 있는 한국 사람이 있다. 바로 연암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먼저 꼽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전통은 ‘선비정신’이다. 일본은 사무라이를 자신들에 대한 전략적 이미지로 삼아 발전시켰다. 이런 노력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친근감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임마누엘 교수는 선비정신이야말로 사무라이 못지않게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독특히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도 선비정신은 한국 역사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이다. 선비정신은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 삶과 학문적 성취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한다. 더불어 선비정신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녔다. 그는 “중국이 한류(韓流)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유교 전통과 사대부 사상을 재발견한다면 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한국이 선비정신을 조속히 자기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임마누엘 교수는 한국 전통문화의 현대적 수용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 전통음악, 한옥, 음식, 사상 등 대단한 전통을 가졌죠. 하지만 현대화가 잘 되지 않



임마누엘 교수가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문화정체성에 대해 쓴 책들

있어요. 바로 이런 전통과 현대 사이에 심각한 문화 단절이 문제입니다. 유럽권의 지식인들은 17~18세기 인문학을 배우고 익혀서 이를 전통문화 계승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심각한 단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자는 문화 콘텐츠를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의 세계화도 전통문화 콘텐츠 재활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의 추석은 자신의 조상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추석을 새롭게 개발해서 현대화시키면 충분히 인류 공통의 훌륭한 명절 콘텐츠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임마누엘 교수의 제안이다. 옛 세대의 에피소드들을 문화 콘텐츠로 살려 외국인들도 추석에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 경의를 표하는 방법들을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상에 경의를 표하는 방법을 각 나라의 전통방식에 따른다면 세계 공통의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다문화는 민족개념의 문제다

임마누엘 교수는 사실 모태 다문화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외국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임마누엘 교수의 어머니는 룩셈부르크 사람이었고 외할아버지는 룩셈부르크 정부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다. 룩셈부르크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전통적으로 다문화 국가이다. 그래

서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와 불어, 독일어를 잘하셔서 아무래도 그런 자유롭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임마누엘 교수는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오래 전부터 아시아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한국과 싱가포르가 저울질되고 있었다.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외국인들도 이미 많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였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에서 싱가포르 대학은 세계적인 석학을 양성해내는 유수의 대학이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때 서울이 가장 가능성 높은 투자처로 다가왔다고 한다.

임마누엘 교수의 한국생활은 벌써 7년이 넘었다. 한국인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그에게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한국의 오래된 다문화 전통을 언급하며 지금의 다문화 현상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가 충남과 경희대에서 특강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지만 한국의 다문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문화의 정의는 영어로 멀티킨추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남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꾸민 가정을 다문화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국 가정을 꾸렸는데 한국 말도 못하고 한국문화를 향유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산다고 해서 다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에도 다문화사회가 있었고, 중국에도 원나라, 청나라 때는 다문화사회였습니다. 다문화사회와 다민족 공동체는 의미가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다문화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엄마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해서 다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다니는 장충초등학교에도 다문화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문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가 조금이나마 정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전에 서로 말도 못하고 한국문화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2007년쯤 되니까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인식되는 ‘다문화’라는 개념이 서서히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벤자민도 ‘너는 미국 사람이니? 한국 사람이니?’ 하는 어려운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질문 정도는 아이들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하진 않지만 다문화 아이와 다문화 공간,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해도 말이죠.”

임마누엘 교수는 다문화는 가정의 문제라기보다 민족 개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단일민족 의식이 강했다. 이것이 원나라로 가면서 다문화사회가 되었고, 조선에 들어와서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폐쇄적인 의식이 남아서 조선만의 소중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20~1940년대 어느 정도 국제화가 되면서 단일민족 의식이 크게 열어지게 된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1961년에는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웠고 국민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식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시 박정

회 대통령은 의도된 대중조작으로 민족을 강조하면서 남북 갈등의 배경으로 단일민족을 주장하게 된다. 이때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 사이에 단일민족 의식이 짙게 되었다고 임마누엘 교수는 강조한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수는 그 시대에는 그런 국민화합의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고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지금은 그때와 사회적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 현대사회는 저출산 소가족에 심각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저출산 소가족 고령화의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단일민족 개념을 초월한 다양한 시각의 다문화 국민들이 서로 어울려 소수의 개인화된 사람들의 입장과 개성에 맞는 다양한 욕구들을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임마누엘 교수의 입장이다.

‘다른 대한민국’에 주목하라

임마누엘 교수가 6년째 심혈을 기울여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인스티튜트는 국내 유일의 민간 아시아 전문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최초의 진정한 범아시아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친 관심사를 포괄하고 기술, 국제관계, 경제, 환경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소를 제공한다. 아시아 인스티튜트는 기업, 정부기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문하는 임마누엘 교수

관, 학계 등 각 부문에서 공헌하고 있는 리더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식과 자원을 취합하는 중립의 장을 제공한다. 연구소는 중국, 일본, 한국,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외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전 아시아를 통틀어 의미 있는 협력을 위해 공헌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며, 통합되고 안정된 아시아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싱크탱크가 참여해 균형 잡힌 관점에서 진정한 국제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임마누엘 교수는 늘 한국인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인구 2000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 제국주의를 채택하지

않고도 선진국이 된 최초의 국가”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 갖가지 문화적 유산을 재발견해 이를 널리 자랑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다른 대한민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마누엘 교수의 주장이다. 다른 대한민국이란 실재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능성 내지는 전망을 말한다. 한국의 새로운 발견쯤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임마누엘 교수는 미국의 키신저와 브레진스키 장관을 예로 들었다.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 인물을 들라면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키신저와 카터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교수였고 하버드대 출신이었죠. 키신저는 공화당, 브레진스키는 민주당이었지만 두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지요. 두 사람 모두 서른다섯 살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키신저는 독일에서, 브레진스키는 폴란드에서 각각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인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너희 중에 미래의 스티브 잡스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석학이 한국 사람 중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외국학생 중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수준 높은 다문화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외국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실력 있는 유

학생들이 한국의 미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미래도 될 수 있고 한국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유대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의 미래는 지금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릴 외국인이 필요하다

임마누엘 교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문화가 중국이나 일본문화에 비해 제대로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문화가 책이나 언론을 통해 제대로 알려져야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인들의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례로 일본은 <국화와 칼>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서나 <쇼군>이라는 우수한 문학 작품을 통해 서양에 일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자국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외국에 소개하는 번역작업도 국가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외국인이 없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다 보니 임마누엘 교수의 역할이 한국문화 소개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새삼 깨닫

게 된다. 임마누엘 교수의 중요한 계획 중 하나가 한국문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외국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한다.

임마누엘 교수와의 짧은 만남은 필자에게 긴 여운을 주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화평론가인 롤랑 바르트가 <신화론>에서 “신화의 본질은 사회적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데 있다.”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재돼 있는 자기비하와 민족비하 의식은 언제 썸 사라질 수 있을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독사신론>에서 말한 “한민족의 시조 단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반만 년의 긴 역사를 지닌, 자유롭고 자주적인 한민족의 기상”으로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교수가 강조해 마지않는 한국인의 선비사상과 독창적인 문화유산들을 헌걸찬 자랑으로 삼아 아시아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경지의 문화기술선진국으로의 한류 열풍을 재점화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문제는 우리 안에 감춰둔 우리만의 보물을 이제는 스스로 꺼내보는 용기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던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END**